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7. 2. 14(화) 오전 9시부터

배포

2017. 2. 13(월)

책임자

금융정책실
김석영 실장(3775-9029)

작성자

김석영 연구위원(3775-9029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, 『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 및 2017년 보험정책방향』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은 2월 14일(화) 오전 7시 30분부터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3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함.
- 보험연구원 김석영 연구위원은 「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」를 발표하였고, 금융위원회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이 「2017년 보험정책방향」에 대해 설명하였음.

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개발

-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현황에 대해 설명함.
- 4차 산업혁명으로 소비자 중심 생산체제 구축이 전망됨.
- IoT 기술은 세상을 연결시키고, Bio 기술은 질병 예방을 가능하게 하며,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활동을 대체하고 있음.

보험산업 미래

- IoT 연결생태계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.

- 보험회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비자 특성이 반영된 계약자별 상품(Order Made)을 판매하게 될 것임.
 - 보험회사는 IoT를 통해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임.
 - 보험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IoT 기업이 보험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.
-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병원과의 협력이 예상됨.
- 병원은 IoT와 결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에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됨.
 - 보험회사와 병원의 의료 및 보험 부가서비스로 충돌가능성 존재
- 인공지능은 보험회사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.
- 인공지능이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하여 설계사 조직을 점진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임.
- 소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, 건강리스크 관리, 일상생활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인공지능 채널을 통해 구매할 것으로 전망됨.
-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,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로 전환 예상

미래 준비

[보험 정책 및 감독자]

- 보험산업에 병원 또는 IoT 기업이 진출하였을 때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방안 검토 필요
 - 병원 또는 IoT 기업의 위험보장 부가서비스 제공 시 보험업 해당 여부 검토

-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의료법,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개정 필요
 - IoT 연결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선제적 검토
 -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의료법 충돌에 대한 검토
 - 계약자별 상품 개발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 및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모집행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

[보험회사]

- 보험회사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**보험회사의 성장 모델 결정 필요**
 -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분야에 집중한 전문보험회사로 전환

-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의 육성 및 협력 체계 구축 필요
 - 판매채널의 변화로 인한 상품개발 능력 배양
 - IoT 회사, 병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